



줄을 당길때마다 하나가 아니다. 청암사 학인스님들과 학생·학부모·교사는 늘 하나다. 환한 웃음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이들의 모습은 높고 푸른 가을하늘을 덮었다.

청암사 비구니스님들과 함께 하는 증산초등학교 가을운동회

영차! 영차! 모두가 '동자승'

높이 매달린 스피커를 통해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행진곡 풍의 음악소리. 반짝 반짝 눈을 빛내며 출발선 앞에 선 아이들.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전력 질주하는 아이들의 땀방울. 하늘 높이 펼쳐지는 만국기.

9월 23일 김천시 증산면 증산초등학교에서는 가을운동회가 한창이다. '경축! 가을 체육발표회'라는 플래카드가 작은 교문에 내 걸리고 음악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자 면장님, 우체국장님, 파출소장님은 물론 동네 어르신들까지 하나 둘 운동장으로 모여들었다. 증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들도 언니 오빠들의 경기에 함께 했다.

전교생이라고 해봤자 46명이 전부인 증산초등학교. 학생수로 보면 팀을 나눠 진행되는 운동 경기가 될까 걱정스럽지만 이날의 운동회에는 특별한 선수들이 따로 있다. 아이들 속에서 아이들보다 더 환한 웃음 지으며 뛰고 응원하는 그 선수들은 바로 청암사주지 상택 승가대학(학장 지행) 학인 스님들이다. 벌써 16번째 청암사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이 선수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청암사 스님들이 증산초등학교 운동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난했던 시절,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던 청암사 스님들이 운동회에 학부모로 참석하면서 시작된 전통이다. 학부모로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응원하던 스님들의 뒤를 이어 이제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올해는 30명의 스님들이 참여했다.

호팀, 청팀, 황팀으로 나눠 진행된 경기에서 스님들도 승복에 색갈 깃을 달고 아이들과 편을 이뤄 운동장을 누빈다. "빈 스님들이 저리 힘이 좋아?"

학부모와 스님들의 줄다리기 시합에서 스님들이 승리를 거두자 운동장 나무 밑에서 구경 중이던 마을 어르신이 농

담을 건넌다. 스님들의 맹활약에 놀라는 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오랜만에 스님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스님들이 더 잘하고 좋아하는 거 같아요. 채소만 먹을 텐데 줄다리기를 할 때는 힘이 너무 세서 놀라워요."

청암사 어린이법회를 다니다 피아노 학원시간과 겹쳐 법회에 나가지 못하게 된 미래는 운동회에서 스님들을 다시 만나자 반갑기만 하다. 일 때문에 부모님이 운동회에 함께 하지 못한 동호에겐 스님들의 응원이 힘이 된다.

30여 년 쌓아온 전통 16년 전부터 스님들 선수로 참여 태극권, 사물놀이를 흥돋우며 '함께 즐기는 포교' 펼쳐

"매년 스님들이 운동회에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스님들이 부모님을 대신해 응원도 해주니까요."

운동장 한쪽의 차양막 아래 자리를 잡은 스님들의 응원은 그야말로 열성적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법회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박수를 친다.

이날 하루만큼은 스님의 위(威嚴)를 잠시 내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달리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사실은 아이들보다 스님들이 더 좋아하는 거 눈치 채셨죠?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보니 모든 것을 잊게 돼요."

모든 경기에 단골손님으로 불려나간 도명 스님(사교과)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스님들의 운동

회에 아이들이 끼여든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로 스님들은 운동회의 손님이나 아니라 주인이 돼 있었다. 대교과 도현 스님은 "운동회에서 스님들과 함께 뛰 아이들처럼 청암사를 마음의 고향으로 느끼고 다시 찾아온다"며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즐기며 포교도 하니 일거양득"이라고 말했다.

이날 스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했다. 증산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태극권 동아리 스님들이 태극권을 선보였고 운동회의 흥을 돋우기 위해 사물놀이 공연을 펼쳤다. 청암사 태극권 동아리는 올 8월 전주에서 열린 태극권 국제 교류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우승컵을 받았을 정도의 실력이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명상음악을 배경으로 8식, 16식, 24식의 태극권 동작을 선보이는 스님들의 모습에 아이들은 신기한 듯 눈빛을 빛냈다.

종이꽃으로 장식한 고깔까지 운동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풍물놀이를 선보이자 여기저기서 추임새가 흘러나오고 어르신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스님들과 어울려졌다. 증산초등학교 전제준 교장은 "아이들이 스님들이 함께 하는 걸 무척 좋아한다"며 "스님들과 아이들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쉽게 친해지고 잘 어울려서 금방 하나가 된다"고 말했다.

증산초등학교의 운동회는 유명한 마라톤 감독인 정봉수 씨를 배출한 마라톤 명문답게 증산초등학교에서 청암사까지 약 8km 구간을 달리는 마라톤과 증산면민 노래자랑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가을 운동회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청명하고 맑은 하늘, 휘날리는 만국기, 점심시간 엄마와 함께 까먹던 흰 계란이 그것이다. 증산초등학교의 운동회엔 청암사 학인스님들의 잣빛 승복과 맑은 웃음이 더해지고 있었다. 김천=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스님! 왜 그렇게 못하셔요. 히히..."

몸은 여섯, 마음은 하나

눈은 가렸지만 '너'를 업으니 잘 보이네!

어! 발이야 하는데...

농악놀이에 맞춰 학부모들도 흥겹게 춤을 춘다.

경기에서 이긴 학인스님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밀납양초 (Bees Candle)

2005년 신제품

삼보귀의 하급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번에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들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밀납초의 특징

- 그늘음이 없습니다.
-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 2배이상 길어집니다.
- 연소 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내음새 그늘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어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십시오.

- 1호 59cm x 18cm 연소시간 72시간 이상
- 2호 59cm x 13cm 연소시간 50시간 이상
- 3호 47cm x 14cm 연소시간 30시간 이상
- 4호 47cm x 9.5cm 연소시간 24시간 이상
- 밀납초 받침대 1호 - 4호까지 사용
- pc컵초 7시간 이상
- 선물용 세트 (1-4호 밀납초 받침대)



아양 양초
뒷줄 6개 = 10-1 70cm x 35cm
앞줄 5개 = 10-2 56cm x 26.5cm
그 외 모든 양초 제조 판매합니다.

